

Robert Chisholm 박사, 사무엘 상하, 세션 9, 사무엘상 13-14장

© 2024 로버트 Chisholm 및 Ted Hildebrandt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9회기 사무엘상 13-14장입니다. 사울은 왕조를 상실하고, 요나단의 믿음은 승리를 가져오며, 사울은 승리를 희석시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사무엘상 13장과 1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1장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군사적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사무엘은 왕권을 갱신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을 공개적으로 축하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전 규칙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순종한다면 안전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 있다고 해서 안전과 축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왕은 여호와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2장이 끝나면 사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읽는다면 사울 치하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13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사울 치하에서 그다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할 것임을 발견합니다. 사울 자신도 실패할 것이고 사실상 그의 왕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상 13장과 14장은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하나의 큰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13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사울이 왕조를 상실했다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16절부터 14장 23절까지입니다.

따라서 13, 16부터 14, 23까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요나단의 믿음이 승리를 불러일으킨다라고 붙였습니다. 실제로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는 상당한

대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작업하면서 이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24절부터 52절까지에서 요나단이 이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 구절에서 사울은 그 승리를 희석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주요 섹션입니다. 14장 24절부터 52절까지, 사울이 승리를 희석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장들을 하나의 단위로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을 진행하면서 초점을 맞추게 될 개념적으로 상당히 별개의 세 가지 섹션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한 강의에서 다루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을 간소화해야 하며 원하는 만큼 자세하게 본문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의 왕조를 상실한 13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제 막 왕이 되었고 이제 그는 이 왕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말입니다. 따라서 이 장의 큰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말씀에 어리석게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의 특권과 축복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NIV 13장의 시작 부분을 읽어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30세였으며, 그가 이스라엘을 42년 동안 통치했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내가 편집자로 일했던 Net Bible 번역판에는 사울이 통치를 시작할 때 나이가 30세였으며 괄호 안의 해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가들 사이에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점에서 히브리어 본문이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겉보기에 한 살이었고 이스라엘을 2년 동안 통치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그가 30세였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그것은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는 내용을 읽습니다. 그래서 일부 번역이 사무엘상 13장, NIV 42에서 40으로 나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의 진술이 일종의 일반적인 반올림 숫자라고 가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두 가지를 가져와서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가 통치하기 시작한 때의 실제 나이와 통치 기간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영감받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가 40년 정도 통치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경우에 사울은 군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이 시점에서 사울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는 더 젊은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다 자란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10장에서 사울이 했어야 했던 일을 합니다. 10장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적을 주었고 그가 말했습니다. “영이 네게 임하시면 네 손이 하는 대로 하라.” 그런데 거기에는 블레셋 전초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이 그 전초기지를 공격했어야 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 같습니다. 대신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정말로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매우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전초기지가 공격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사무엘상 13장에서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전초기지를 공격했다는 것을 읽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10장에서 언급된 블레셋 전초기지가 기브아에 있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Geva와 Gibeah는 동일한 위치에 대한 대체 이름일 뿐입니다. 아니면 여기서 기브아로 읽도록 본문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Geva가 근처에 있지만 다른 장소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지리에 관한 논쟁이 아마도 요점을 약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점은 요나단이 근처에 있는 블레셋 전초기지를 공격했다는 것이다. 그는 사울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전초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사실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조나단이 그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증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단 때문에 이곳에서 그들을 어려운 상황에 빠뜨린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사울과 합류하기 위해 사람들이 소집됩니다. 블레셋 군대가 집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병거가 있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군사가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 비해 매우 위협적이고 우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끔찍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사울은 길갈에 남아 있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가 떨고 있더라.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본적으로 사무엘이 10장에서 이야기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블레셋 전초기지를 공격한 다음 길갈로 가서 7일 동안 그를 기다리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사울에게 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고, 제사를 드린 다음, 사울에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 주곤 했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이 이사회에서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더 이상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니, 분명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블레셋 전초기지가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여기 길갈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상황이 바로 이것이다.

나는 사무엘이 이 모든 일이 내가 말했듯이 훨씬 더 일찍 일어나도록 의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7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는 그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 따르면 그는 사무엘이 정한 때인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아니하였고, 사울의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사무엘은 이전에 그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시겠습니까?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정중하게 몇 분 정도 늦게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하자 사울은 그를 맞이하러 나갔다.

사무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하였느냐?” 그리고 아마 그 사람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사울이 대답하되 내가 보니 그 사람들이 흩어지고 당신들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아니하는 것을 보았나니 사무엘에게 이 일을 지시하는 것과 블레셋 사람들이 믁마스에 모였으니 곧 내 군사들이 가느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로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당신은 당신이 말했던 대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올 것이라 생각하였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매우 경건하게 들리지만, 이는 순종보다는 의식과 종교에 대한 사울의 집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는 번제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태도에는 몇 가지 실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관점에는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면에서 결함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첫째, 점점 줄어드는 세력에 대한 우려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가 전투를 결정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인간 군대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당신 편이라면 당신이 얼마나 많은 군인을 가지고 있는지가 정말로 중요합니까? 주님께서서는 과거에 아주 적은 수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셨습니다. 사실 기디온이 알아낸 것처럼 그는 때때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사울이 믿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의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사울은 믿음보다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희생 제사에 대한 그의 관심은 순종보다 의식을 높이는 잘못된 신학을 드러낸다. 그는 주님께 어떤 희생을 드려야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달래야 합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교 세계관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당신이 하나님을 조종하여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다는 근본적인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옳은 것을 주면 그 대가로 그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울의 생각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순종보다 의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셋째, 그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왕이요, 여호와를 대표하고 민족을 위한 중보자인 사무엘 선지자의 지휘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10장에서 사울에게 지시하면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무엘의 도착이 늦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사울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주어진다는 암시나 암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언자 사무엘의 권위를 찬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행한 일에는 많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사무엘이 그에게 “네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더라면 그가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그 왕이 유다에서 나올 것이라고 선언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그것을 조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창세기 49장의 앞부분이 법령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단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사울은 영원한 왕조를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심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과 사울이 실패할 것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타당한 진술입니다. 당신은 지속될 왕국, 지속될 왕조를 가질 수 있었지만 당신은 당신의 죄 때문에 그것을 상실했습니다. 그가 행한 일에 대해 다소 가혹한 처벌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사울이 여기서 그의 왕조를 상실한 데에는 몇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방금 보여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믿음 부족, 의식에 대한 잘못된 초점, 선지자 제사장에 대한 존경심 부족. 그러나 이제는 당신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통치자라는 단어는 Nagid입니다. 멜렉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울에게 일종의 알림입니다. 왕은 내 밑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부총장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권위 아래 있으며 이는 선지자의 권위 아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왕국은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왕조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글쎄, 그게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 마음대로 남자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사울은 그것에 대해 열정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사람, 물론 우리는 그것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아직 이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다른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우리는 14장 7절에서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약간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해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지만, 14장에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요나단은 전략을 세우고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는 전투에 불을 붙이고 승리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무기를 든 자만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수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들과 싸우라고 도전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무기를 맡은 자가 요나단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라 하니 그의 무기를 맡은 자가 이르되

계속하세요. 나는 당신과 함께 마음과 영혼이 NIV가 번역한 방식 이지만 문자 그대로는, 보세요, 나는 당신의 마음에 따라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보세요, 그것은 13장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사람을 선택했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갑옷을 입은 자가 무엇을 말하느냐?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도 당신의 뜻대로, 내 뜻이 당신의 뜻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드럼 비트에 맞춰 행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13장에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임의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앞서 사도행전 13장 21절을 언급했는데, 그 내용은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22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사울을 제거한 후 다윗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왕.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셨으니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보세요, 사도행전 구절에서 우리는 내 마음에 맞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얻습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내 뜻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기 13장 14절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일치하고 모든 면에서 그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물론 데이빗도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사무엘은 또한 당신들이 여호와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그것은 모두 주님의 뜻에 관한 것입니다. 사울은 여호와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이 다른 사람을 통치자인 나기드(Nagid)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어로 임명이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명령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임명이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치 그가 이 사람이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공식적인 법령을 내린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는 그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13절에 나오는 명령이라는 단어를 활용한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14절에서는 볼 수 없지만 13절에서는 보입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일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더라면 그가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에게 그의

백성을 다스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래서 명령이라는 단어에 대한 연극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어때요? 그는 다른 사람이 당신을 대신할 것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이러니한 말장난이 보이시나요? 때로는 번역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히브리어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 기브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계수했는데 그 수가 약 600명이었습니다. 따라서 13장과 14장의 첫 번째 주요 부분에서 우리는 사울이 그의 왕조를 상실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한 큰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그것은 단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어리석게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의 특권과 축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앞부분의 엘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고, 여기서는 사울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자면, 주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통치자들이 자신의 예언적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예언적 명령은 성경입니다.

선지자였던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불순종으로 인해 특권과 축복이 상실될 수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면에서 매우 비극적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의 왕조를 잃었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왕위에서 제거될 것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지만 왕조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13장과 14장의 다음 주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13장 16절에서 시작하여 14장 2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요나단의 믿음은 승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서의 원칙은 주님의 위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이 그분의 구원 개입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16절에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나옵니다. 자, 요나단은 이전에 언급되었으며 우리는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는 그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주목하게 하는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방금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왕조. 그리고 이는 그의 아들 조나단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섹션이 진행됨에 따라 우리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와 달리 위대한 왕이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 가져야 할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나단과 초기 다윗, 어린 다윗이 그토록 좋은 친구가 된 이유입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한 그러한 결심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읽으면 다소 비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방금 말한 내용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블레셋 전초기지를 공격한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구절을 건너뛰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기 산업을 독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정말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22장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던 날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있던 군인은 손에 칼이나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그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전투의 맥락에서 우리는 14장 1절에 이르게 됩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의 젊은 무기병에게 이르되 오라 블레셋 전초로 건너가자 반대편에.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기브아 외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로 돌아왔다. 그런데 14장 3절에 따르면 사울은 에봇을 입은 아히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글썄요, 그는 신부입니다. 그는 이가봇의 동생 아히둡의 아들이요 비느아의 증손이요 실로의 여호와의 제사장 엘리의 증손이니라 아무도 요나단이 떠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의미가 보이시나요? 왕조를 잃은 사울 옆에는 왕조를 잃은 제사장 엘리의 후손인 아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서를 통해 읽을 때, 여호와를 존경하지 않음으로 왕조를 잃은 엘리와 사울 사이에 때때로 유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종의 함께 간다.

그러나 어쨌든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에 불을 붙일 의지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의 젊은 무기병에게 말한 대로, 저 할레받지 않은 사람들의 전초 기지로 건너가자.

아마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행동하실 것입니다. 요나단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매우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아마도 그는 히브리어 단어 ulai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행동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주님의 구원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태도는 아버지의 태도와 다릅니다. 그의 아버지는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완전히 달라요. 그는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저쪽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시작해보자.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행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해보자.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갑옷 소지자, 당신은 말하고 싶었지만 우리는 둘 뿐이니 상관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소수의 사람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기를 든 자는 자랑스럽게도 우리가 이전에 이 구절을 살펴보았으니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하라고 그의 무기를 든 자가 말했습니다. 계속하세요.

나는 마음과 영혼과 함께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는 당신의 마음에 따라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의 뜻은 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나단은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들을 향해 건너가서 그들이 우리를 보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갈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거기 머물고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마치 조나단이 어떤 식으로든 싸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정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들이 '기다려라, 우리가 내려올 거야'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로 오라고 말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 시점에서 조나단이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간다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내려간다고 하면 우리는 남아서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올라가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후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벽에 올라가서 그들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갈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은, 이거 대단하지 않니? 내 말은, 요나단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해 보인다면, 무기를 든 사람이며, 그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표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도전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 다 블레셋 전초기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 말했습니다. 종종 구약에서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언급할 때 그들은 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들이 숨어 있던 구멍에서 기어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이 지나갈 때까지 구멍에 숨어 지내는 것을 너무 두려워했다고 들었습니다. 전초병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에게로 오라 우리가 너희에게 교훈을 주리라

그래서 그 표시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무기를 든 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 올라오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리고 요나단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대리인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단지 허세, 조나단이 영웅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테스트스테론이 너무 많다는 것 등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대리인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그렇게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단순히 요나단이나 요나단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언어, 즉 번역 방식이 그들에게 부여되었음을 주목하세요. 히브리어 본문에서 사용되는 동사 형태는 화자의 관점에서 볼 때 완료된 행동을 나타냅니다.

때로는 예언적 완료형이라고도 불립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의 완전성이라고 부르고 싶다. 때로는 수사적 효과를 위해 화자는 동사 형태를 사용합니다.

마치 이미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끝난 것만큼이나 좋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일이 전개되면서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은 손과 발을 이용해 기어올라갑니다. 응, 그럴 거야.

하지만 그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손과 발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그만큼 가파르다. 그리고 그의 무기를 든 자가 바로 뒤를 따랐고, 블레셋 사람들은 요나단 앞에서 쓰러졌다.

그리고 그의 무기를 든 자가 그를 따라가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그림은 요나단이 지나가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오는 무기병들을 쳐부수고 그들을 마무리 짓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공격에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병은 약 0.5에이커 정도의 지역에서 약 2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 전체, 진영과 야전에 있는 사람들, 전초 기지와 공격대에 있는 사람들이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려워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공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정말로 주님의 싸움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적군은 이미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것을 보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라고 말할 것이라고 예상할 것입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공격하자.

기브아는 사울이 감시하던 중에 군대가 사방으로 녹아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군대를 모아 누가 우리에게서 나갔는지 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거기서 가서 뭔가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갔을 때 거기에는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줄을 서서 점호를 했을 때 조나단이나 무기를 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울이 아히아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이르되

아키아는 성물을 맡은 제사장 엘리의 후손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좋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절에 대한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점에서 여호와와 그의 궤는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따르면 그곳은 아마도 6마일 떨어진 기랴제아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가져와 가져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기서 에봇이나 에봇을 읽는 것이 더 좋은 독서일 것입니다.

그것이 칠십인역의 내용입니다. 요세푸스도 그런 독서를 했습니다. 그 성서 번역판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에봇을 갖고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에봇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의복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궤는 이차적인 해석일 수도 있고, 히브리어 본문에 들어간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독서 에봇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사 가져오기를 사용하면 더 잘 이해됩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는 손을 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따르면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손을 거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나요? 요나단이 이 전투에 불을 붙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패닉상태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패닉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공격하기 전에 종교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그는 법궤나 아마도 에봇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격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무엇이든 원하시는지 알아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즉 아카이아(achia)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패닉이 점점 커지자 사울은 결국 그 일을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영적 감수성과 순종 이전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고, 20절에 따르면 블레셋 사람들이 칼로 서로 쳐서 혼란에 빠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워하던 히브리 사람들 중 몇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군대에 합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했습니다. 큰 전투.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는 Beth-Avon 너머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믿음이 승리를 불러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섹션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이 이 승리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근원은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군대도 아니고 의식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위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은 그분의 구원 개입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하시는 일의 촉매제가 되는 것은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적의 전사이시며 다수 또는 소수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통의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는 요나단의 훌륭한 진술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 중 하나는 적어도 우리 개신교인들이 보는 것처럼 정경에는 없습니다. 마카비 1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카베오는 기원전 2세기에 유다 마카베우스가 어떻게 소규모 군대를 이끌고 강력한 시리아 군대에 맞서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소수인데 어떻게 그렇게 크고 강한 무리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1 마카비 3.17. 그러자 유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은 사람은 소수로 인해 감히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보시기에는 많은 사람이 구원하든 소수가 구원하든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투의 승리는 군대의 규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은 하늘에서 옵니다. 그리고 유다는 시리아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패주시킵니다.

유다 마카베오가 표현한 그 감정은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에 대해 큰 승리를 거둔 사무엘상 14장의 내용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너는 너의 원수보다 더 강하다. 이것이 이 에피소드의 두 번째 주요 섹션입니다.

세 번째는 그다지 흥미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14장 24절부터 52절까지를 보면 사울의 승리가 희석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자신의 명예에 대한 집착이 신성한 축복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결정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고 오늘 이 승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어리석은 짓을 저지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우리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열정을 갖고 전투에 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날 이스라엘 자손이 곤경에 빠졌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을 결박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기 전에 저녁이 되기 전에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군대 중 누구도 음식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여기서 우리는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내가 적들에게 복수할 때까지 모든 블레셋 사람이 전멸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다짐할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여기서 개인적인 복수나 그와 비슷한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나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억하세요, 요나단은 그들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초대한다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조나단은 모든 것이 주님에 관한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나단과 사울 사이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이러한 대조는 정말 중요합니다. 조나단은 우리가 문학 작품에서 호일이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포일은 다른 캐릭터와 대조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위대한 왕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는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일종의 호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야기에서 그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했는지 보여주며, 만약 그가 그의 아들 요나단처럼 주님을 신뢰했다면 어떠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야기에서 주로 요나단은 사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우리가 인식하도록 돕기 위해 등장합니다.

이런 대조가 있습니다. 호일과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에 관해 생각한다면 요나서에 나오는 선원들을 기억하십시오.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희생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두려움으로 주님을 두려워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요나와는 대조적입니다. 여호와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쳐서 외치라 하시면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가 반드시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의 간척에 참여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동기가 무엇이든 그는 주님께 불순종합니다. 선원들은 포일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하실 때 당신이 어떻게 그분께 적절하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중에 니느웨 왕은 호일입니다. 그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적절하게 반응합니다.

그는 회개합니다. 요나는 거기 앉아서 뼈죽거리고 불평만 합니다. 따라서 포일은 대조를 위해 존재하는 문자입니다.

선원들은 요나에게 호일입니다. 롯기에서 오르바는 롯에게 부적 역할을 합니다. 소녀들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갈 때 나오미는 나와 함께 계속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는 앞으로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물론 그녀는 매우 근시안적이다. 오르바는 돌아가고 롯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나오미가 그녀를 축복했다고 해서 오르바가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은 나에게 신실하였으니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빕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주장은 오르바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래서 집에 가야 해요. 오르바는 당신이 기대하는 대로 행합니다. 오르바가 선택했다면 롯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녀는 훌륭해요. 그리고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지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롯에게 부적입니다.

때때로 호일은 음수, 양수 또는 그 사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여기서 사울에게 호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본적으로 저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전에 먹는 사람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중 누구도 음식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25절에 따르면 군대 전체가 숲으로 들어가는데 땅에 꿀이 있습니다.

그들은 꿀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도 맹세가 두려워 입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조나단은 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타나서 누군가가 그에게 "아니, 아니, 조나단, 그러지 마"라고 말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 끝을 내밀어 그것을 벌집 속에 담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을 입에 가져갔고 그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이 천연 꿀은 그를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다. 그러자 군인 중 한 명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후가 아니라 이전이 어떻겠습니까? 너희 아버지는 군대를 묶어 맹세하여 이르되 오늘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남자들은 기절합니다.

요나단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내 아버지가 이 나라를 괴롭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꿀을 조금 맛보니 내 눈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보셨나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약간의 에너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적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얼마만큼 먹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살육이 이보다 더 크지 않았겠느냐? 그러므로 요나단은 무기를 든 사람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절벽에 올라간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을 신뢰하면서도 실천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려면 약간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런 짓을 하겠는가? 그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므마스에서 아얄론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지쳤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부서지고 갈라집니다. 그들은 약탈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싸웠고, 지금 당장은 음식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들은 배고프다. 그리고 양과 소와 송아지를 가져다가 땅에서 잡아 피와 함께 먹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정결 의식에 관한 구약의 율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와 함께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어리석은 서약으로 인해 그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 백성들은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울은 이를 촉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피가 든 고기를 먹어 여호와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당신은 믿음을 깨뜨렸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당장 여기에 큰 돌을 굴려주세요. 의식과 이 모든 것에 대한 사울의 집착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사람들 가운데로 나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각각 소와 양을 내게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으라 하라.

고기를 피째 먹어서 여호와께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기를 먹기 전에 핏물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모든 사람이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 사울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이런 짓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사울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새벽까지 노략하고 한 사람도 살려 두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블레셋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복수에 대한 그의 열망은 그에게 많은 굴욕을 안겨 주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아마도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째서 사울이 이 사람들을 이기지 못합니까?'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에게 기회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 하십시오,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여기서 하나님께 여쭙어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울은 항상 이런 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내가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장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무슨 죄가 있는지 알아보자 어찌면 그의 마음 속에는 그들이 행한 일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이 시점에서 사울은 요나단이 행한 일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을 쫓기 전에 왜 주님께서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는 거기 서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여기 서 있으리라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일을 하세요,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어찌하여 주의 종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만일 잘못이 나에게 있거나 내 아들 조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둠뭉으로 응답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응답을 얻기 위해 사용했던 장치인 우림과 둠뭉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나는 그들이 가방에 들어 있는 것을 상상했고, 우림이라고 표시된 것을 당기면 그것은 A 편이 되고, 다른 것을 당기면 그것은 B 편이 된다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요나단과 사울은 제비를 뽑아 뽑혔고 그 사람들은 삭제되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제비를 뽑으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요나단은 잡혀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행한 일을 나에게 말하십시오. 그래서 조나단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는데 이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나단의 진술의 어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냉소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것을 위해 죽어야만 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이 알지 못한 채 군대를 취하게 했다는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서원을 어겼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여기 45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요나단이 죽어야 합니까?”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가져온 분이 누구이십니까? 절대.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고 있으며 사울이 그날의 영웅을 처형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나단을 구해냈고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이 개입하여 사울이 그를 처형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구원이나 구출을 의미하는 더 일반적인 단어 중 하나가 아니라 파다(pada)입니다. 그리고 파다(pada)는 때로 단지 구조나 구원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위해 대가를 치르다, 구속하다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한 가지 이론은 그 사람들이 개입하여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돈을 모아 기본적으로 몸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맹세를 어기고 서약을 어기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비극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의 초기 사건, 즉 사사기에서 입다가 나가서 적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던 사건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고 자신이 옳고 적이 그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사기 10장과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사건을 재판장이신 주님께 맡기고 돌이켜 주님께 여쭙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가오는 이 전쟁에서 저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면, 싸우면 인간 제물로 바치겠다. 그는 자신의 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했을 것 같지만, 나는 당신에게 희생을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은 판사에게 뇌물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밀폐된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옳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위해 결정하시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은 이교도적입니다. 지금은 사사시대입니다.

그는 이교도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주님께 궁극적인 희생을 바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그가 집에 도착하면 그의 딸이 문밖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내가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그것이 동물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어에 약간의 모호함이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언어는 인간을 포함할 만큼 충분히 유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딸을 바쳐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의 딸이 나오고, 그는 간다. 오 안돼, 당신이 그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사사기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엔 그가 자신의 딸을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쳤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결론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생각나네요. 사울은 자신의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가서 패배시키지 않으면 그들에게 이 저주를 선포하여 승리를 보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생명을 위태롭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요나단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군대가 개입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요나단을 구해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 추격을 멈추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울이 행한 일에 대한 요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가족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이 부분과 다음 문학 단위인 사무엘상 15장 사이에 약간의 장벽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사울이 요나단이 가져온 위대한 승리를 희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신의 명예에 대한 집착은 신성한 축복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으로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때때로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것과 그분의 왕국 프로그램보다 우리 자신의 명예에 몰두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집착에 빠지면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것인데,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종교적 형식주의에 대한 집착도 있다. 사울의 경우에는 저주와 제물이었는데 그런 것, 특히 경솔한 서원이나 맹세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 나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의 불순종 때문에 왕조를 잃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왕이 될 사울의 아들, 큰 믿음의 사람이 큰 승리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을 위한 복수에 몰두하여 그 모든 것을 희석시켰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처형할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군대가 개입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15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그는 이미 15장에서 그의 왕조를 잃었습니다. 그는 다시 주님께 불순종할 것이며, 이 경우 주님은 그에게 당신이 개인적으로 왕에서 제거될 것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통치를 끝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수업에서 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9회기 사무엘상 13-14장입니다. 사울은 왕조를 상실하고, 요나단의 믿음은 승리를 가져오며, 사울은 승리를 희석시킵니다.